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2019. 9. 26 ^목

14:00 - 17:00

서울 히브루스 코워킹센터 (10층)

주최/주관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및 자료배포

14:00-14:10 소 개

14:10-14:20 [개회 및 축사]

박소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4:20-15:20 [주제발표1]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사례

진종현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주제발표2] 몸으로 보는 경관

강영조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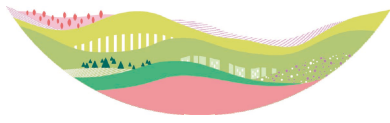
15:20-15:40 휴식 및 장내정리

15:40-17:00 [진행] 이상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김아연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7:00 폐회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차례

[주제발표1]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사례 1

진종헌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주제발표2]

몸으로 보는 경관 12

강영조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주제발표1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사례

진종헌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과 사례: 경관의 물질성 회복

진종헌(공주대 지리학과)

1. 전통적 경관연구: 칼 사우어

- 문화지리학의 의제: 자연경관 위에 펼쳐지는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
- 형태를 강조하는 전통적 접근
- “자연경관은 문화집단에 의해 문화경관으로 변형된다. 문화는 작인(agent)이며 자연지역은 매개체(medium)이고 문화경관은 그 결과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경관은 변화를 거듭하다가 종국에는 변화의 사이클이 멈추게 된다. 이 때 외래문화와 같은 또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서 그 경관이 회춘하거나 새로운 경관이 기존의 경관위에 포개진다.”

2. 신문화지리학: 재현적 경관론

- 경관은 물질적 실체이면서 이미지 혹은 텍스트
 - 경관의 해석적, 상징적 측면을 강조
- James Duncan의 경관텍스트론
 - 경관은 '쓰이고' '읽히는' 일종의 텍스트
 -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재생산
 - 경관의 자연화naturalization와 탈자연화denaturalization
- Denis Cosgrove의 경관이미지론
 - 보는 방식a way of seeing: 문화적 이미지이며 환경을 재현하고 구성하는 시각적 방식
 - 경관의 도상학iconography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이론 (D. Cosgrove)

- “경관은 일종의 문화적 이미지이며, 환경을 재현하고 구조화하고 상징하는 시각적 방식이다. 이는 경관이 비물질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경관은 다양한 재질의 표면에 재현될 수도 있다: 캔버스의 그림, 종이위의 글, 지표면의 식생. 공원이 풍경화나 시구절같은 재현된 경관보다 결코 더 사실적이거나 덜 상상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 “경관은 인문지리학에서 독보적으로 가치 있는 개념이다. 장소와는 달리 경관은 자연의 윤곽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환기시킨다. 환경이나 공간과 달리 경관은 인간의 의식과 이성을 통해서만 그 윤곽이 우리에게 알려지며, 단지 기교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그 곳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경관은 지리학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익과 손해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기도 하다”

당신의 연구에서 경관은 핵심개념입니다. 공간이나 장소와 같은 여타의 지리적 개념과 비교할 때 경관이 갖는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 “저에게 경관은 몇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영국에서 경관은 시각(vision)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서 시각은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세계와 그리고 상상과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세계(visionary)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작들에서 이같은 강력한 회화적 연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관계들 때문에, 경관은 내게 항상 물리적 세계를 지각하는데 있어 강력한 물질적 참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관의 전통적인 지리학적 의미-인간거주와 행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 물리적 혹은 자연적 환경-를 독일지리학의 landschaft개념과 와 칼 사우어로부터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거주와 행위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만음이나 상상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관은 심미적 차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와 인간의 감각(aesthesis: 심미적 지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은 명백히 지리학내에서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개념이지만, 내 연구목적과 관련해서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또한 공간은 프랑스의 철학적 전통에서 상당히 명시적으로 이론화되었으며 지리학내에서 사회적인지와 권력에 대한 르페브르식 담론에 완전히 얽매어 있습니다. 장소는 풍부하고 생산적인 개념이지만 내게 그것은 물리적 세계와 지리학의 환경에 대한 오랜 관심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E-interview, D. Cosgrove)

- 코스그로브는 원근법과 경관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분석하면서, 렐프(E. Relph)와 같은 당대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한계를 극복
 -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반과학주의적(anti-scientist) 경관개념을 비판
- 도시 부르주아가 새로이 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지도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르네상스휴머니즘에서 개념으로서의 '경관'은 공간의 실제적 전유와 밀접하게 관련
- 두 가지 전유방식: 측량이나 지도 제작이 공간에 대한 실제적 지배를 위한 것이라면, 풍경화나 정원디자인은 공간에 대한 시각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위한 것(Cosgrove, 1984).
 - 경관개념의 과학적 기초: 풍경화와 측량은 또한 유클리드 기하학(예: 원근법)이라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 가능
- 현대의 지리학자들은 경관개념에 역사적으로 내재한 과학적, 예술적 함의를 부인함으로써, 지리학의 경관개념을 타 학문 및 역사적 전통과 분리

- 영미 지리학자들은 과학적 지리학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지리학의 경관개념을 화가들 및 작가들의 그것과 분리시켰으며, 그 와중에 풍경화와 지도제작에 공통적이었던 시각 이데올로기-경관, 원근법, 자산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통제간의 연계-는 지리학의 연구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Cosgrove 1985).
- 한편, 현대지리학의 실증주의적 경향에 적대적이었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협소한 의미의 과학적 방법(실증주의)에 반대한 나머지 경관의 전통에서 과학적(혹은 기술적) 요소를 발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코스그로브는 유럽의 인문주의적 전통을 따라 경관의 계보학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리학에 내재한 경관개념의 과학 및 예술과의 연계를 밝혀냈다.

3. 비재현적 경관론: 물질성 회복?

-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 30년 이후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흐름-비재현적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과 연구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
- 수행(performance) 및 실천(practice)과 관련하여 시각의 특권적 지위박탈을 주장
- 비재현적 지리학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경관을 일종의 결과물(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과정 속에 있는 실천으로 간주
- 문화지리학자 Lorimer: '비재현이론'은 인간, 텍스트, 시각 중심에서 탈피하려는(more-than-human, more-than-textual, multi-sensual) 다양한 연구들을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
 - 재현을 넘어서는(more-than-representational) 지리학이라고 표현
- 시각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감각의 재발견(예를 들면 聽官 soundscape), 응시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체현적 지식, 지리학의 시각주의에 대한 비평, 체현적 지식, 덜 공공적이고 더 실천지향적인 기억연구 등

현상학적 경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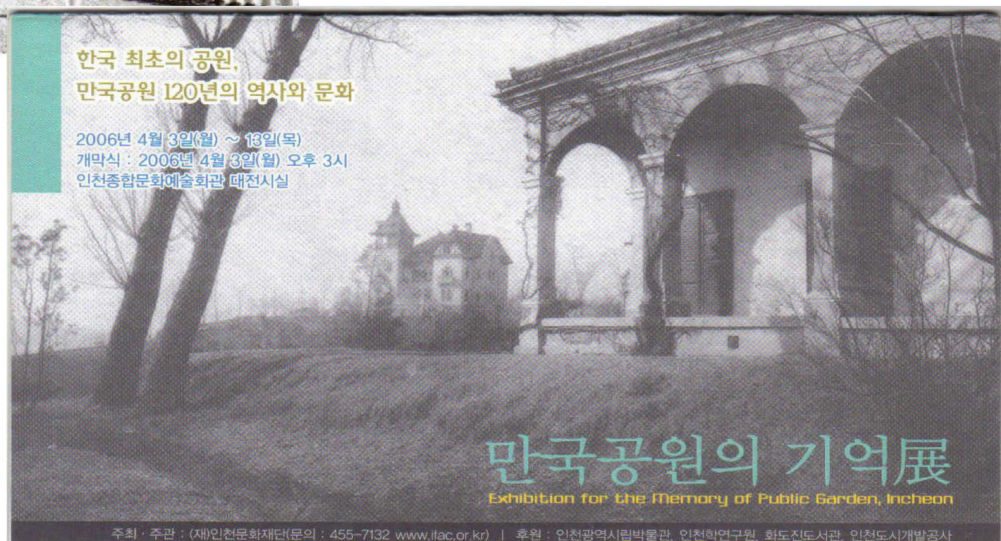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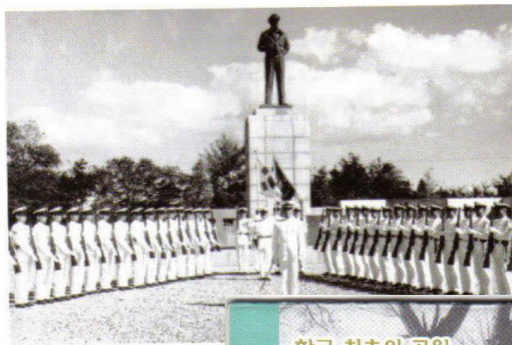
- 인류학자 Tim Ingold
- “나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구분에 반대한다. 그러한 이분법의 근거에는 정신과 물질, 의미와 실체(meaning and substance)-의 구분이 있다. 경관은 정신의 눈으로 조망하는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질서가 부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외부적 실체가 아니다(Ingold, 2000, 191)”
- Cosgrove & Daniels의 경관개념(보는 방식a way of seeing)비판
 - 이원적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고 비판: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 문화와 자연
 - 데카르트적 주체-객체 분리observation, distance, spectatorship
-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한편에는 탈체현된(disembodied) 문화적 의미들-상징경관-이 존재하고, 이와 별개로 텅 빈 기반으로 자연경관이 있다는 것

Temporality of Landscape

- 문화지리학 비판
 - 전통적 경관관념비판: 경관을 인간문화의 외부에 있는 일종의 (자연) 배경이자 무대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경관론’
 -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관념비판: 모든 경관 속에 상징적 의미가 배어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주의적 경관론’
- 생활세계(lifeworld)로서의 경관을 제안
- 경관의 일시성/시간성(temporality of landscape)
 - 추상적인 연대기와 역사 vs. 사회적인, 생활시간
 - 일상과 거주(dwelling)으로서의 경관
 - 시간성은 신체활동을 통해 수행되는performed 것

Hybrid Geography & landscape

- 포스트휴머니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희미해짐
- 문화지리학의 물질성회복(materialist return)
 - 존재(being)에서 생성(becoming)으로
 - 기하학에서 위상(기하)학topology로
- 위상학: 공간과 공간관계를 거리와 위치보다 연계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지리학적/수학적 사고(예: 지하철 노선도)
 - 런던은 위상기하학적으로 영국의 소도시보다 뉴욕에 가깝다
- ❶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비판: 위상학적 패러다임의 이질성, 이동성, 유동성과 대조적으로 경관은 고정적
- ❷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자연'개념(물질적 자연에 문화적 의미를 각인) 비판
- ❸ 경관은 역사적으로 지형학적topographical: 공간,측정,거리,표면: 위상학적 관념과 대조



Ingrid pollard



... Searching for one abelle, waded up my wellington boots, carrying
lost souls of brothers & sisters released over the ship side ...

"pastoral interlude"
... it's as if the Black experience is only lived within an urban environment.
I thought I liked the Lake District; where I wandered lonely as a Black face in
a sea of white. A visit to the countryside is always accompanied by a feeling
of unease; dread ...



제주의 원풍경: 오름경관의 생태미학

•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경관으로 한라산과 같은 자연경관, 돌담과 같은 인문경관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오름경관이 제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경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새로운 상징경관으로서의 오름경관에 대해 문화지리학적, 생태미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의 경관 사이에 형성된 동학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여기서 제주의 상징경관은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제주의 영속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문화와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문화경관임을 뜻한다. 제주의 새로운 상징경관으로서의 오름은 제주의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이 능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일종의 매개로서 역할 한다.



차례

-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름경관의 환경사
- 오름경관의 생태학과 미학
 - 인터뷰를 중심으로
- 새로운 보는 방식의 등장: 시각과 실천의 경관
 - 1) 오름경관의 심미적 재현: 김영갑
 - 2) 오름경관의 성적인 재현: 지슬, 오름 오르다
 - 3) 오름, 수행performance의 경관
- 결론: 담론/실천이 경합하는 장으로서의 오름 경관

1970s~80s 제주관광과 경관미학

-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경관이미지
 - 지점(points and areas) 위주의 관광
 - 지리적 맥락과 환경, 주민들의 일상과 분리: 이국적 경관
 -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관광
- 제주의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재현에서 배제
 - 특히, 중산간 지대 (오름경관)의 배제
 - 중산간(오름)은 제주관광에서 무존재
 - uncalled/unseen
 - 개발-보전 이분법(분단의 공간정치)의 효과
- 문화 vs. 자연, 내부자 vs. 외부자(관광객, 개발자, 정부 등)의 분리와 함께 새로운 경관미학의 출현
 - 관광을 위한 경관이미지는 제주민들이 고유한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충돌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제주경관의 경험(미학과 실천see/practice)
 - 점(points): 새로운 관광지의 발견
 - 선(lines): 올레길
 - 면(surfaces): 오름트레킹
- 제주를 ‘보는 새로운 방식’의 출현
 - 제주민들 사이에 오름 트레킹의 대중화
 - 관광객들로 확대
 - 제주의 새로운 상징경관으로 부상
 - a way of seeing -> a way of “doing” landscape
- 실천(practice) 과 수행(performance)의 경관
 - 외부의 시선에서 생산된 고정된 경관재현의 극복

제2차 AURI 경관포럼

경관을 보고 읽는 다양한 시선

주제발표2

몸으로 보는 경관

강영조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몸으로 보는 경관

강 영조(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환경세계

환경세계라는 용어는 욱스쿨(Jacob Von Uexküll)에 의하여 제기된 용어이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욱스쿨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만약 길가에서 맹견이 우리에게 짖어대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 사나운 개를 쫓아버리기 위하여 길바닥에 깔려 있던 <돌 조각>을 집어 들어 던진다. 문제는 이 돌 조각의 의미이다. 욱스쿨은 이 돌의 형태도 무게도 그 외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도, 돌의 색과 강도, 결정구조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 실로 근본적인 변화가 그 돌에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의미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

길바닥에 있을 때 돌 조각은 보행자의 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때 돌 조각의 의미는 길로서의 역할을 띠고 있었다. 욱스쿨의 용어로 말하면 이 때의 돌맹이는 <길의 톤(tone)>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길바닥에 있던 돌 조각이 사나운 개에게 던져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길의 한 부분으로서 돌 조각의 의미를 상실한다. 사나운 개를 쫓아버리기 위한 무기가 된 것이다. 이 때 돌 조각은 사나운 개를 쫓아버릴 <투척(投擲)의 톤>을 띠게 되었다. 바로 이 때 새로운 의미가 돌에 새겨진 것이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돌 조각은 낯선 자에 대한 경계의 몸짓을 움츠러들게 하는 위협물이 된 것은 물론이다. 동일한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

욕스쿨은 이 <의미의 톤>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각되는 환경이 각각 다른 주체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세계의 의미의 문제로 확대한다. 다소 길지만 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는 동일한 방안을 그린 그림이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대상물을 사람과 개, 그리고 파리와 관련된 작용의 톤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약 이 방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림 2의 ①>과 같이 그 속에 들어 있는 대상은 인간에게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의자는 좌석의 톤, 탁자는 식사의 톤, 그리고 컵과 접시 등은 각각 그것에 대응하는 작용의 톤으로 그려져 있다. 바닥은 보행의 톤을 지니고, 책상은 독서의 톤, 책상은 글쓰기 톤을 나타내고 있다. 벽은 장애물의 톤을 그리고 램프는 빛의 톤을 나타낸다.

개가 그 방에 들어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림2의 ②>와 같이 사람과 동일

한 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겨우 식사, 좌석의 톤이 있을 뿐 나머지는 장애물의 톤으로 나타났다. 회전 의자도 너무 빙글 빙글 돌아서 개에게는 좌석의 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파리에게는 <그림2의 ③>과 같이 램프와 탁자 위에 있는 대상물을 제외 하고는 모든 것이 보행의 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육스쿨의 주장은 이렇다. 동일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의 톤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실체로서 환경이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재편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그는 환경세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어떤 사물도 주체에 따라 지각되는 지각세계(Merkwelt)가 되고 그것은 주체의 행동의도에 따라 작용세계(Wirkwelt)가 된다. 지각세계와 작용세계가 공동으로 하나로 된 통일체, 즉 환경세계(Umwelt)를 만들어낸다."(야콥 폰 육스쿨 <생물로 본 세계>(히다카 토시타카 역, 1974)에서)

육스쿨은 이 지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제 각각의 행동에 따라 분절한 의미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육스쿨이 인간의 환경세계를 기술한 부분이다. 인간의 환경세계에서는 의자는 좌석의 톤, 탁자는 식사의 톤으로 분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환경세계에서는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탁자는 식사라고 하는 음식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절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바닥은 보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책상은 독서, 책상은 글쓰기를 하는 장소로 분절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방안의 사물을 분절하고 의미부여 한다. 물론 의미가 부여된 것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각각 다른 색으로 분류된 이 방안의 사물들은 그 분류의 스펙트럼만큼 다양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방안을 가득 채운 사물의 그것을 사용할 인간 측에서 본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세계에서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은 주체의 행위에 대응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행동심리학은 이미 이 사실을 지적 하고 있다.

경관의 가능성적 의미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은 단순히 형태를 띠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성능으로 보인다. 날이 시 퍼렇게 선 칼이 단순히 얇고 긴 금속체로 보이기 보다는 다짜고짜 섬뜩하게 보이는 이유도 우리의 시각세계가 이미 의미세계라는 것을 웅변 한다.

행동심리학자 톨맨(Tolman, E.C)은 이렇게 말한다.

"의자는 거기에 앉으면 기분 좋게 쉴 수 있다거나 거기에 앉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톨맨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은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라고 하는 명제(命題:proposition)로 현시(現示) 되고 우리의 지각은 그 사물이 함의하고 있는 명제에 대하여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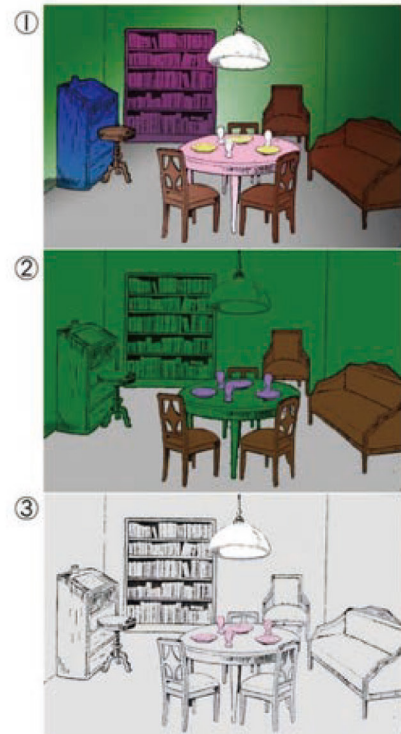


그림2 육스쿨의 환경세계(위에서 부터 사람, 개, 파리의 환경세계)

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의자는 객관적인 물체로서가 아니라 의자가 기능하는 성능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인지심리학자 제임스 깁슨도 톨맨과 생각이 같다. 깁슨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공간형상의 고유한 도형적 성질에 의한 시각적 분절을 넘어 "~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이른바 공간의 가능성적 의미다.

"신은 신을 수 있는 듯이 보이고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을 듯이 보인다." (제임스 깁슨 <시각세계의 지각>, 1950에서)

부드럽게 보이는 모피, 편안하게 몸을 감쌀 듯 한 폭신한 가죽 의자, 먹음직스러운 먹거리, 단숨에 자를 수 있는 듯이 보이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 뜨겁게 보이는 불, 비가 올 듯한 먹구름의 하늘. 깁슨이 열거한 가능성적 의미를 띤 공간들이다.

이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경관체험의 문제로 되읽은 것은 일본의 경관학자 나카무라 요시오(中村良夫)이다. 그는 <풍경학입문>(1982)에서 "실생활에서 지각되는 공간이나 물체는 우리들의 행동 또는 가상의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미로 가득차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공간 의 조작적 의미(manuplative meaning of space)'로 명명하고 이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1) 물체는 그것을 쥐든지, 밀든지, 또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음식물은 먹을 수 있는 듯이 보인다. 물은 건드리면 기분 좋을 듯이,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할 듯이 보인다.

(3) 건축물은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리의 교각은 상판을 지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공간의 의미는 우리의 촉감이나 근육, 피부 감각, 혹은 신체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몸과 세계

"도구는 손의 연장(延長)이다. 도구는 거의 손의 부속품. 혹은 사용자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다." (제임스 깁슨 <생태적 시각론> 1985에서)

제임스 깁슨의 말이다. 그는 가위를 쥔 손을 보여주면서 가위는 손의 연장(延長)이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미용사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눈과 손끝의 감촉으로 머릿결과 그 길이를 가늠했을 것이다. 그러나 숙련되어감에 따라 신체의 감각이 가위 날까지 자라나게 된다. 이윽고 가위 날이 고객의 머릿결과 길이를 가늠하고 의도한 머리 모양을 재현한다. 가위를 잘 다루는 장인에게는 그것은 그의 피부 바깥에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맹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든 손의 감각으로 바닥의 상태를 느끼다가도 점점 익숙 되면 지팡이 끝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어느새 신체의 감각이 지팡이 말단에 까지 자라난 듯이 자연스레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 뿐 아니라 몸에 지니는 생활용구도 신체가 된다. 예로써 신발을 들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발바닥은 그것을 감싸는 신발의 내부를 주로 감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보행 행동에서 발바닥은 신발의 내부를 거의 감지하는 않는다. 길바닥의 평탄감, 재료의 딱딱함 과 부드러움, 미끈거림, 자갈길



James J. Gibson, January 27, 1904 - December 11, 1979

에서는 돌의 크기까지 구두의 바닥으로 느낀다. 우리의 살아 있는 몸은 구두바닥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감각이 도구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손과 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운전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신체와는 유리(遊離)되어 거대한 철덩어리로 여겼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면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의 실내가 턱없이 넓어 보였다. 상대적으로 운전석에 앉은 자신의 몸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다. 자동차는 핸들의 조향과 제동과 가속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함에 따라 자동차는 자기의 몸을 움직이듯이 쉽게, 그리고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 때부터 운전자의 몸은 자동차의 부피만큼 커져 있다.



바퀴는 구두가 그랬듯이 운전자의 발 감각이 연장되어 도로의 표면 상태를 직접 지각한다. 진흙탕을 지날 때에는 질퍽거리는 느낌이 바퀴를 통하여 발에 직접 전해 온다. 자동차를 흔히 '발'이라고 표현하고 자동차가 없을 때 '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동도구에 대한 의인적 표현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미 운전자의 신체로 양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몸이 자동차의 부피와 무게만큼 커지거나 무거워진다고 하는 몸의 확장감각은 좁은 길을 마주 오는 차와 교행할 때나 좁은 터널을 지날 때 운전자의 몸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넓은 다리를 지날 때 그 다리에 부하하는 자기의 중량감이 느껴지는 것은 자동차는 이미 운전자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의 확장은 도구를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공간으로 확장하는 몸이 있다. 우선 에드워드 홀의 설명을 들어보자.

"야생 동물은 인간 혹은 그들의 적이 가까이 다가와도 어떤 일정한 거리까지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 (에드워드 홀 <보이지 않은 차원> 1966 에서)

그는 적이 다가왔을 때 도주하기 시작하는 적과의 거리를 도주거리 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크기와 도주거리와의 관계에는 정비례한다고 했다. 도주거리란 적이 다가오면 그 적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두기 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적으로부터 피습되지 않을 거리의 최소치이다. 그런데 도주거리보다 적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 동물은 도주를 멈추고 공격하기 시작한다. 홀은 이 거리대를 공격거리라고 한다.

에드워드 홀은 "인간은 스스로를 가축화한 동물이다"라고 한다. 동물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사람도 영역감을 가지고 있다. 공원의 잔디밭에 앉아 쉬려고 할 때 기급적 부근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된다. 벤치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곳을 피하여 비어있는 곳을 찾게 된다. 불가피 하게 사람이 있는 벤치에 앉아야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과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비어 있는 지하철에 올라탈 때에도 제각각 가장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영역에도 타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사람의 몸은 피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라고 하는 몸의 경계를 뛰어넘어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방은 그 방 주인의 확장된 신체다. 우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몸은 그 우산의 갓 만큼 펼쳐져 있다.

그런데 도구의 신체화와 공간의 신체화와는 약간 다른 신체의 확장이 있다. 외부의 사물에 직접 우리의 몸이 투영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은 중력장에서 취해야할 연직성과는 다른 특이한 자세 때문에 유명하지만, 실은 그 사탑 앞에 섰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우리의 몸은 사탑에 투영되어 비스듬한 신체 자세가 되어 중력에 저항하는 자기를 발견한다.

이치가와 히로시도 이렇게 말한다.

"주체적으로 살아 있는 우리들의 신체는 결코 피부 내측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피부의 밖으로 확장하여 사물과 뒤섞여 있다."(이치가와 히로시 <몸의 구조> 1993에서)

피부 바깥으로 확장하여 세계의 사물과 뒤섞이는 몸은 물리적인 자기가 아니라 가상(假想)의 자기이다.

몸으로 보는 경관1, 운전자와 도로

몸이 피부 바깥으로 확장되어 세계와 교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납득이 되면 원활하지 않은 도로의 선형이 때때로 주행 방해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부연하면, 운전자는 도로의 선형이 꺾이는 먼 거리까지 가상의 몸이 달려가서 그 선형이 원활한 운전행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선경험하고 있다. 주행 방해감이 도로 선형의 종단형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림이 있다<그림1>. 도로의 선형은 매끈하게 이어져 있다. 그 매끈함은 가상의 운전행동을 역시 매끈하게 한다.

물론 가상의 몸이 먼 거리에 미리 달려가는 행동은 '거침없는 운행'이 라고 하는 운전행동의 '바램(願望)'에 기인한다. 나카무라 요시오도 이렇게 지적한다.

"투시형태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의 선형은 운전자의 가상행동에 방해 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나카무라 요시오 <교통행동에 관련한 경관체 험의 공간 의미론적 연구> 1979에서)

나카무라 요시오는 바람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려는 운전행동은 도로의 선형뿐 아니라 오히려 도로에 인접하는 지형이나 구조물에 의하여 인도된다고 한다. 특히 절토(切土)에 의하여 형성된 경사면을 문제로 삼는다.

"지형의 인공적인 절단은 지형심리학에 흥미 깊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운전행동을 하는 인간 측에서 보면 절토는 마치 자기가 지형을 절단하면서 진행하는 듯한 근육 감각적 저항을 동반한다."(나카무라 요시오 <교통행동에 관련한 경관체 험의 공간 의미론적 연구> 1979에서)

<그림2>를 보자. <그림2(위)>는 절단한 지형자락을 그대로 둔 것이며 <그림2(아래)>는 그 부위를 없앴 것이다. 나카무라의 설명에 의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지형을 절단한 도로에 접한 운전자는 가상의 자기가 도로의 끝 부분에서 있는 지형을 자르듯이 미리 진행하는 경험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아직 그 지형공간에 접근하지도 않은 운전자이지만 절단된 지형공간으로 말미암아 이미 원활한 운전행동에 저항감을 체험하고 있다. 지형이 절단되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도로 전방의 자투리 산덩이는 운전행동의 방해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그림2(아래)>와 비교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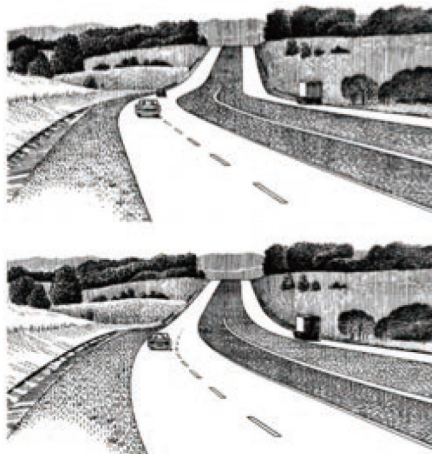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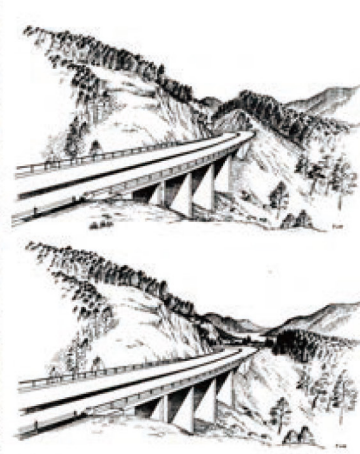


그림2

쉽게 납득이 된다.

그러므로 도로 건설에 지형의 절단이 불가피 하다면 그 절단면의 처리는 운전자의 가상의 주행행동을 방해하지 않은 형상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2(아래)>와 같이 자투리 산덩이를 제거하든지 절단 경사면을 산 능선의 선형과 연속적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자연스런 산자락의 끝이 도로에 인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행의 방해감이 도로의 선형은 물론 인접하는 지형과 구조물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경관체험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주행의 방해감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저항감은, 운전자가 기대하는 운전행위란 주행의 원활성에 있다 라는 것의 방증이다. 운전자가 기대하는 주행 행동을 지원하는 공간형상이 쾌적한 도로 경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쾌적한 공간이란 우리가 의도하는 행동과 그 기대에 부합되는 공간이다.

몸으로 보는 경관2, 친수공간

그러므로 친수공간이란 우리가 의도하는 친수행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물가와 수면, 그리고 물가의 구조물이 우리의 친수 기대 행동에 부응하고 있는 공간이다. 친수행위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물에 다가감이다. 물가에 서서 수면을 보거나 물가를 걷는 행위, 완만한 사면으로 걸어 내려가 수면으로 다가서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온 몸에 맞는 행위. 그리고 수면을 건드린다, 물에 발을 담그다, 배를 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다 등이 친수행위다.

정선의 <피금정(披襟亭)>에서도 이러한 친수성 공간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물가로 내려선 완만한 경사, 수면과 육지면과의 낮은 단차, 꽃부리와 골창의 리드미컬한 반복, 물가로 난 계단 등 수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 시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수변에 서 있는 빈 정자는 그 속에



겸재 정선 <피금정>

들어가서 수면의 표정을 바라볼 수 있는 듯이 보인다. 품세 좋은 나무들이 물가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열을 지어 일제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가로운 여행객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와유적 경관체험을 유발하는 요소들 외에도 깨끗한 수질, 얕은 수심을 나타내는 여울 등 친수성을 상징하는 공간적 도구가 모두 마련된 느낌이다.

강호(江湖) 생활의 친수행동에 빠질 수 없는 소도구인 조각배는 강기슭의 계단 가까이에 정박해 있다. 이 그림을 보는 감상자의 가상 행동은 어떤 것일까. 일단 배를 타기 위해서는 계단으로 내려와야 한다. 수면으로 뻗어 있는 계단을 내려와 배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는 배에 몸을 싣고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물새나 구름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강심(江心)으로 배를 내어 고기잡이라도 하는 것일까.

정선의 그림에 표현된 친수 상징 도구 외에도 물가의 너럭바위 등 수면에서 체류하도록 보이는 공간도 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친수적 가상행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반드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능적으로 이미 무용해진 돌계단이나 돌다리라도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것의 역사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관적인 이유로도 의의가 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